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

-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 천명
- 법치주의 확립 등 유공자 14명에 훈장·포장·표창 수여

□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의 불법성을 알리고 내란죄 구성 가능성을 제기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운 법률가들과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군용차를 막는 등 헌정 질서를 수호해 내신 모든 국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며 참석하신 국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 붙임 1 제63회 '법의 날' 기념 법무부장관 감사패 수상자 명단

□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에 경의를”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하였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20여 년 법관으로 재직하고,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하여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조계의 공익 문화 확산에 앞장서주신 오윤덕 변호사(사연 3기)가 수상하였습니다.

황조 근정훈장은 공직 비리, 대형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엄단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사연 30기)가, 국민훈장 동백장은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과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이,

홍조 근정훈장은 구태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사연 32기)와 장준호 수원지방법 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사연 33기)가, 녹조 근정훈장은 이명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이, 국민포장은 정지웅 변호사(변시 1회)가 수상하였습니다.

※ 붙임 2 제63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 “억강부약(抑强扶弱)과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억강부약(抑强扶弱)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곧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주권자께서 수호해 주신 이 소중한 헌정의 가치를 인권과 법치로 꽃피우는 것, 그것이 법무부에 주어진 지엄한 명령임을 명심하고, 정의와 인권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며, 법치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 기념사(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별도 배포

‘법의 날’ 연혁

- 1958년 미국에서 시작된 ‘법의 날’ 운동과 1963년 세계법률가대회에서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1964년 「법의날에관한건(대통령령)」 제정, 5월 1일을 ‘법의 날’로 공포
- 2003년 ‘법의 날’ 기념일을 4월 25일로 변경
 - 근대적 사법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 4. 25.)을 고려하여 변경

담당 부서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책임자	과장 노일석 (02-2110-3673)
		담당자	서기관 차유진 (02-2110-3864)

성명	수상 사유
한인섭	법학 교수로서, 비상계엄 당일 계엄의 불법성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고,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소셜미디어에 전파하는 등 헌정 수호에 기여함
홍원기	비상계엄 당일 주위를 인솔하여 다른 시민들과 국회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리는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함
김정환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비상계엄 직후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위헌성을 알리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임명 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정 수호에 기여함
김혜정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로텐더홀로 진입하려는 군경을 막아 세우고, 당시 상황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중계하며 다른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
오종길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용차를 저지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을 방해하던 경찰과 대치함
석민주	비상계엄 선포 후 다른 시민들과 함께 국회 주변에서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저항하였고, 이후 깃발 제작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확산에 기여함
박선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1문 앞에서 다른 시민들과 연대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의 국회 투입을 규탄하는 즉흥 연설을 하였고, 당시 현장을 촬영하며 헌정질서 수호 과정을 기록함

제63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공적요지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울지방법원 변호사	오윤덕	법관 퇴임 후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하여 청년 공익변호사를 양성,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조계 공익 문화 확산에 기여함
황조 근정훈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이종혁	공직비리 등 주요 사건 실무업무를 총괄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 수사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국민훈장 동백장	인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고문	이태훈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초기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지원 및 상담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적극 기여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	박소현	27년간 58,000건의 법률상담, 화해조정 및 가정폭력 상담 모델 정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구현에 기여함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구태연	중요 민생침해범죄 수사과 공판,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법무교육 등을 수행하여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에 기여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검사	장준호	내란외환특검 수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 특별환수 업무 등 다수의 범죄 수사를 수행하며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서기관	이명재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 규칙 개정안 마련,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등 사법행정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함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공적요지
국민포장	변호사정지웅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지웅	입법 발전에 헌신하고,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서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과 인권옹호를 주도하여 정의 실현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나일도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수용자 교화행사 비용 지원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함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장석일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피해자 지원,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 구축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함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휘	정부출연기관 최초 셉테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범죄예방 정책을 체계화하고, 범죄예방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함
국무총리 표창	광주전남 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선덕규	준법 질서 확립 등에 힘쓰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 인권옹호,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장	정해청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 및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함
	법무부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위원	이재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27명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각종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등으로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함